

아이디어 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강신묵 · 새생각회 회장

하나를 붙들고 늘어져라

“나는 이런 편리한 연필깎이를 만들었다. 실용 신안에 출원해서 권리를 팔고 싶다.”는 사람이 가끔 있다.

어느 것이나 대체로 편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장나기 쉽다’, ‘값이 비싸다’, ‘위험하다’ 따위의 결점이 눈에 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연필깎이가 팔렸는지 알고 있는가?”하고 물어보면 거의가 어렸을 때 가졌던 연필깎이의 지식과 자기 자녀의 것 밖에 모른다. 그래서 왕관병마개의 이야기를 들려 준다.

테인타는 병속에 든 알맹이가 상하지 않는 병마개를 발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마개가 발명되어 있는가를 조사했다. 콜크마개, 고무마개, 금속마개, 끼움마개, 음료용마개, 약병마개, 화장품마개 따위를 5년 동안에 6백 종류 이상의 마개를 수집했다.

그래서 드디어 현재의 사이다, 맥주 등에 쓰이고 있는 ‘콜크를 안에 넣은 금속판을 덮은 마개 왕관병마개’를 발명하여 ‘소품발명왕’이 됐다.



당신이 만일 연필깎이를 발명하고 싶으면, 지금까지 어떤 연필깎이가 있는지 조사하라. 조그만 문방구만 찾아가도 4~5 종류는 팔고 있다. 우선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조사하고, 다시 백화점에서 조사하고, 다음에는 등근 막대기를 깎는 선반의 깎는 법은 물론, 물건을 깎는 공구에 대한 같은 계통의 지식이 붙고, 그 위에 공부가 쌓여야만 백만명의 학생이 쓸 수 있는 연필깎이가 발명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정석이다.

발명력이 있는 사람은 모방도 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아이디어를 짜내는 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의 오슨본은, 한 권의 책 이름을 붙이는데 6백 종 이상의 이름을 생각해 내어, 여럿이서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는 제명을 골라내어 성공했다.

606이란 독일의 에르리히가 606번째 실험에서 합성해 낸 유기비소화합물로 살발산의 약명을 가지고 있다.

성병인 매독에 무방비상태였던 유럽에서 살발산은 획기적인 발명이었다. 그때문에 1908년 노벨의학상을 받았다.

이처럼 같은 계통을 꾸준히 붙들고 늘어지는 억척스러운 끈기가 이런 훌륭한 발명을 낳는다.

자유시간 살려 써라

회사원이나 공무원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도 좋은 자유시간이 있다. 여기에 토요일의 반휴, 일요일의 전휴, 그 밖의 유급휴가를 친다면, 그것은 매우 많은 시간이 되며, 또 이 자유시간은 앞으로는 더욱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 자유시간을, 거저 여가로 생각하지 말고 '정신적인 면을 발전시키는 시간'으로 이용하여, 사업의 공부를 하고, 여가를 즐기는 대신 노력하고 연구하여 발명가가 되고 전문가가 되거나, 기업인이 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자유시간을 취미에, 그것도 창조적인 자기의 인생을 기쁘지게 하는 취미의 육성에 쓸 것, 또 그 취미를 가지는 것도, 젊어서부터 가지는 것이 좋다. 그 까닭은 젊어서 일찍부터 가질수록 그 취미는 50세 쯤에서 넉넉히 길러져서 자기의 삶에 '보람과 보탬'을 준다.

'좋은 취미를 기르는 시간'처럼 생각해서 여가를 즐기며 더욱더 인생에 도움되는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창조하는 시간에 쓰는 것이 좋지 않겠

는가!

K군은 여가를 살려서 실내장식가가 됐다. 처음에는 '자기집을 세우겠다'는 일념에서 실내장식과 가구따위를 연구하는 동안에 정년퇴직후에는 훌륭한 실내장식가가 된 K군은 건축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법과를 나온 평범한 회사원에 지나치 않았다.

그러나 자기 집을 가지고 싶어서, 주택백과라든가, 소주택 계획집, 주택설계 따위 전문지를 읽고 연구하며 그 밖에도 신주택, 실내설계입문과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시간을 소주택설계와 실내장식의 연구에 몰두하는 동안에 뛰어난 실내장식가로 또 주택건축의 전문가도 겸해서 월간지 '실내'에도 가끔 기고하게 됐다.

이처럼 일요목공에서, 나의 집을 갖고 싶다는 일념이 정년퇴직후에 실내장식가와 건축전문가로서의 일기를 이루었던 것이다.

K군은 자유시간을 여가로 보지 않고, 연구와 노력, 그리고 인내로 자기를 전혀 딴 길의 전문가로 올려 세웠다. 이처럼 월급장이가 갖는 자유시간을 여가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돌린다면, 자칫 따분해지기 쉬운 삶도 풍부해지고 뜻밖의 방면에 대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발대신 머리로 팔아라

옛날에는 거의 수공업으로 상품을 만들었다. 옷감만 하더라도 할머니나 어머니가 찰각거리면서 집에서 베틀로 짰다.

옷 한 벌 만든데도 대단히 수공이 들었다.

만들기 힘들고 생산량도 적었기 때문에 발이나 손이 중요했다.

상인이나 직공은 학문은 필요없다. 또 군인은 글자는 성명만 적을 수 있으면 됐었고, 두뇌는 완전히 무시됐다.

그러나 기계생산이 되니까 손은 쓸 데가 없어졌다. 최초의 10~15년이란 오랜 동안에 솜씨를 익혀야 했었는데, 기계가 발달함에 따라 숙련공은 필요없고, 더욱이 발과 손이 쓸모가 없어졌다.

그 대신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머리가 쓰인다. 대량생산된 제품을 팔아재칠 지혜가 있어야 한다. 또는 판매경쟁에 이겨나갈 책략의 지혜가 요구된다. 이것이 새생각을 소중히 여기게 된 까닭이다. 그러나 때는 바야흐로 원자력, 자동화, 전자두뇌 시대로 바뀌었다.

원자력이 되면 굉장한 동력을 낸다.

자동화가 되자 기계가 무엇이나 해치운다. 미국 포드회사의 디트로이트공장에서 자동화를 채용했더니 2천 명치의 작업을 겨우 20명의 노동자로 거뜬히 해낼 수 있었다. 이 결과로 다시 대규모의 판매전 광고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판매 광고의 마지막 목적은 고객의 입맛에 맞추는 일들로 '어떻게 하면 광고(판매)효과를 올릴까?' 하고 생각하는 아이디어 경쟁이 맹렬히 벌어지고 있다.

자동화의 특징은 지금까지 인간만이 했던 복잡한 판단까지 기계화하는데 있다. 또 전자두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복잡한 계산까지 바르고 빠르게 해치운다. 기계가 진출해서 인간의 손발의 작업 뿐 아니라 인간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판단하는 기능까지 대신하게 됐다. **발특9603**

신간안내

이제 I이론도 만들때다

여기서 I(나), Idea(아이디어), Invention(발명)을 의미함.

저 자 : 왕연중

그 림 : 김민재

판매처 : 본회자료판매센터(551-5571/2)